

책의신간



명암

'고(苦)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한 <명암> (The Light Inside the Dark: Zen, Soul, and the Spiritual Life)이 출간됐다.



집 밖에서 집 안에서

일상적인 운동으로도 정신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한 <집 밖에서 집 안에서> (Working Out, Working Within: The Tao of Inner Fitness Through Sports and Exercise)가 출간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시에 '선(禪)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심리학자 제리 린치박사는 체력 단련 중에도 자신의 순결과 생각에 집중한다면 정신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Putnam Pub Group 판. ISBN: 0874779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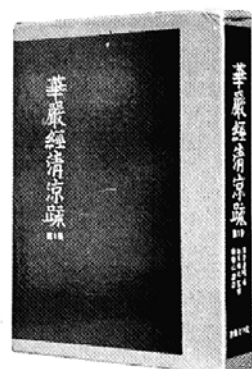
'화엄경청량소' 첫 번역 출간

80화엄경 대표적 주석서...1권 제주묘엄품 나와

"비록 텅 비고 텅 비어 자취가 끊어졌으나 진리의 하늘에는 못 별들이 찬연히 빛나고, 맑고 맑아서 말을 붙일 수 없으나 가르침의 바다에는 그 물결 호연(浩漣)·한없이 넓은 모양)하기 이를 데 없네." 청량국사가 <화엄경>을 해설하면서 남긴 이 한마디. 경전은 또한 아름다운 문학 입문, 감동의 바다임을 일깨운다.

청량 징관스님(738~839)이 <화엄경>을 해설해 놓은 <청량소>는 섬세하고 아름답다. 선이 깊고 호쾌하다는 통현장자의 <합론>과 함께 80권 <화엄경>의 대표적 주석서로 일컬어지는 <청량소>는 교가(敎家·경론에 준거해 수행하는 집단)에서 널리 읽힐 만큼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왔다.

그런 <청량소>가 처음으로 번역돼 나왔다. 은혜사 승가대학원에서 수학중인 반산스님이 2년간의 노력 끝에 <화엄경청량소>라는 이름으로 <청량소>를 우리말로 되살려냈다. 한 학인이 <화엄경>을 대하는 수행



자로서의 노력과 열정이 돋보이는 책이다. 무비스님(은혜사 승가대학원장)이 감수했다.

이 책은 봉은사에 소장된 목판 80권 <화엄경소초회본>을 원본으로 하고, 원본 현토는 화엄학 연구소 각 성스님의 현토본을 참고했다. 화엄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학인들은 물론 일반불자들에게도 '화엄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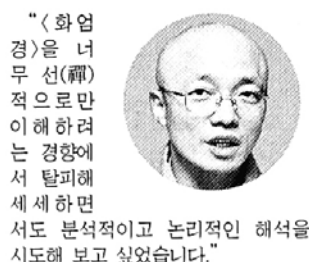
를 이해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청량소>는 <대방광불화엄경소>의 다른 이름으로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논술하고, 그 문외(文外)를 해석한 책이다. 이번에 출간된 <화엄경청량소> 제1권은 <화엄경>의 서품인 '제주묘엄품'을 번역한 것.

이 책은 <청량소>의 '소(疏)'를 모두 번역하고 '초문(鈔文)'은 역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골라 실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봉선사 능엄화림의 월운스님이 현재 집필중인 <화엄경과도(科圖)>를 준용해 각종 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번역은 직역을 위주로 하되 현대적 감각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해당부분에 대한 역자의 상세한 견해를 덧붙여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10개 과목으로 나눈 목차를 두어 읽는 이들의 편의도 도모했다. 값 2만8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20년계획 20년 완간

원력세운 반산스님



"<화엄경>을 너무 선(禪)적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에서 탈피해 세세하면 서도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화엄경>에 매달린지 어느새 10년. 이미 화엄의 큰 광맥을 캐는 한 사람의 광부가 되어버린 반산스님. <청량소>를 번역해야겠다는 생각은 부처님의 해명을 신앙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원장스님(무비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반산스님은 이번에 출간된 '제주묘엄품'을 제1권으로 해서, '십지품' '여래현상품' '여래명호품' 등을 차례로 번역, 20년 계획으로 모두 20권의 <화엄경청량소>를 완간하겠다는 원력을 세워 놓았다. 이를 위해 스님은 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뜻있는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0563)336-1762

우주의 원리 인연법에서 해답찾자

법운스님 '불교와 과학'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연구해 왔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우주창조의 원리. 불교는 과연 이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가.

법운스님(광명 청통사 주지)이 펴낸 <불교와 과학>(불교교총추사 판)은 우주창조의 원리가 불교의 연기법임을 밝힌 책이다. 우주에 관한 현대과학의 지식을 동원해 지구를 비롯한 천체들을 설명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불교의 근본원리에 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우선 불교의 근본 교리를 과학과 접합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법운스님의 과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도 독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또 우주창조의 원리에는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내용도 신선하다. 스님은 <장야합경>과 <세기경>에 나오는 '모든 존재하는 물체들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우연히 생겨나는 것은 없으며, 소멸하는 원인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생기고 없어진다'는 연기의 법칙이 우주의 원리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즉 모든 존재의 현상이 생겨나고(成) 유지되고(住) 무너지고(滅) 없어지는(空) 네 가지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이 바로 우주창조의 원리임을 말한다. 또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정경의 삼법인이야말로 우주만물이 생성되는 사리를 밝힌 것이며, 상주불멸의 근본도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값 8천원.

한명우 기자

'십우도' 통해 서구신학 반성

김승철교수 '해체적 글쓰기와 다윈주의로 신학하기'



<해체적 글쓰기와 다윈주의로 신학하기>(시공사 판)는 불교의 '십우도'를 종교다윈주의 완성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기독교의 배타성과 서구신학 논리의 무분별한 도입에 따른 동양신학의 '위기'를 지적하고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저자 김승철 교수(부산 경성대 신학과)는 십우도의 가르침인 무집착과 참자유가 바로 종교 다윈주의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김교수는 종교 다윈주의의 완성과정을 십우도의 10단계에 맞춰 설명한다. '십우'는 종교다윈주의의 길을

떠남이요, '득우(得牛)'는 자신의 체계를 고수하려는 전통의 모습으로 비유한다. 그러나 '기우귀가(騎牛歸家)' 단계에서는 옛 전통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고, '반본환원(返本還原)'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종교다윈주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한 반성은 화엄사상에서 찾는다. 들는 이의 태도를 존중하는(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불경은 '생각도 이론도 끊어진'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고 말한다. 값 8천원.

한명우 기자

'화엄법구백선' 번역

정광교 경한철 교장 범공양



조계종 종립 광주 정광교등학교 경한철 교장(62)이 최근 <화엄법구백선>(불교출판 선우 판)을 번역 출간했다. <화엄법구백선>은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화엄에서 1백개의 법구를 뽑아 실은 책. 중국 항주 영암사 서점에서 구입한 이 책에 번역과 주석을 붙였다.

경교장은 동진의 불타발타라(佛說跋陀羅)가 번역한 60화엄과 '보현행원품'에서도 1백개의 법구를 가려 뽑아 책으로 엮을 계획이다. 법보시용. (062)226-5161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사신문 집계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est-selling books.

구입문의:(02)737-0695

차 한잔을 마시며...

정승석 지음

수필읽듯 쉽게 배우는 교리-용어

불교교리는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에서 진실을 발제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어렵다면 그것은 특정한 용어가 담고 있는 경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탓일 뿐이다.

정승석 교수(동국대 불교학부)의 <차 한잔을 마시며 나누는 불교교리>는 '풀어 쓴 불교 이야기 책'. 대승과 소승, 불성과 깨달음, 계율과 설법 등 교리와 사상 등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것들을 수필형식으로 담았다.

제목 그대로 차 한잔을 나누며 대화하는 듯한 편안한 느낌의 입문서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용어나 교리는 별도로 설명해 놓았다. <민족사, 7천5백원>

깨달음으로 가는 일곱 단계

오소 지음

우파니샤드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



우파니샤드는 고대 인도의 철학서다. 여기에는 우주의 본체와 개인의 본질이 일체라고 하는 범아일여(梵我一如) 사상이 담겨있다.

<깨달음으로 가는 일곱 단계>는 우파니샤드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설명한 '구도자들을 위한 깨달음으로 가는 안내문'과 같은 책이다. 선사들의 일화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경전이라는 난해함에서 벗어나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다. 주로 명상을 통한 수행법을 강조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했다. 책 말미에는 수행자들의 갖가지 질문에 대한 오소의 답변을 첨부해 수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황금북, 1만2천5백원>

화제의 책

신심명

문재현 역음

승찬스님의 선사상 폭넓게 설명



'신심이란 돌 아닌 경지이며, 돌 아닌 경지가 신심이다.' 중국 선종 3조인 승찬스님의 계승 <신심명>의 한 구절이다. <신심명>은 선리(禪理)의 극치를 노래한 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 뜻이 오묘하고 깊어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문재현 법사(대한불교정맥진흥회장)가 주해를 달아 해석해 놓은 <신심명>은 승찬스님이 율조린 선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원문과 그에 대한 해석을 실고, 뜻을 폭넓게 설명한 주해를 달았다. 또 '법문' 코너를 마련해 계승의 원뜻에 맞는 문법사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불법과 삶의 이치에 대한 세계를 열어 보인다. <바보보인, 1만원>

우롱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롱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I. 지성(至誠)으로 살자 II. 불자의 살림살이
III. 불자의 축원 IV. 불자의 기도
V. 일체교역을 벗어나는 길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7,000원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기도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앙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 I. 새벽예불 II. 오분향례 III. 부처님일시여, 크--큰 크--크
IV. 거룩한 시대보살 V. 영산회상의 거지들
VI.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VII. 자타일시성토

신국판 5,000원